

**춤·노래·연극 어우러진 '하늘언덕, 엄마' 무대 올리는 세 여자, 이당금·박선옥·박양희씨**



춤과 노래, 연극이 어우러진 '하늘언덕, 엄마'를 함께 만든 이당금·박양희·박선옥(왼쪽부터)씨는 1년에 적어도 한차례씩은 공연하는 게 꿈이다.

**“오랫동안 교감만 하다 일 한번 냈죠”**

“이 세 여자들 일 내겠는데.” 작곡가 배창희(남부대 교수)씨가 ‘세 여자’에게서 음악감독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처음 공연 안내 포스터를 받았을 때 기자의 생각도 비슷했다. “이 세사람이라면 적어도 뻔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지는 않겠다.” 세 여자가 만났다. 연기하는 이당금(46·푸른연극마을 배우), 노래하는 나무 박양희(48·인도명상음악가), 춤추는 박선옥(47·광주여대 교수)씨가 한 무대에 선다. ‘하늘언덕, 엄마’(AUMMA, 崖)를 통해서다. 28~29일 오후 7시30분, 30일 오후 5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사직공원 옛 KBS 광주방송총국)

이들의 만남은 신선하다. 지역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협업 작업을 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중견 예술인들이 상대 공연에 단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함께 한 작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5일 광주 연바람 소극장에서 만난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함께 공연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기운이 넘쳐났다. 양희씨는 “오랫동안 서로 사모하다가 이번에 일을 벌인 거”라며 웃었다.

각각 한살 터울인 세 사람은 늘 어디선가 마주쳤고, 서로의 작품을 보았고, 서로에 대해 생각했다. 당금씨와 양희씨의 인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길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바울이 된 후 8년간의 인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양희씨의 귀국 공연에 함께 했고 이후 ‘포엠 콘서트’를 통해 마음을 주고 받았다. 양희씨가 선옥씨를 본 건 2007년 즈음.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살 터울 지역 중견예술인들  
수년간 알음알음 공연 참여  
벼르고 별른 한 작품 무대에  
28~30일 오후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연**

갖게 됐다. 선옥씨는 처음 박양희의 노래를 들었을 때부터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다. 이후 2010년 망월 묘역에서 5월 비나리 공연을 함께 했고, 팽목항에서도 함께였다.

이번 작품의 출발은 지난해 열렸던 평화연극제에서 20분 분량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였다. 잘 짜여진 공연 대신 기본 컨셉만 공유하고 무대에 올랐지만 공연 내내 교감을 느꼈고, 언젠가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어보자 싶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작품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다. “언제나 마음 편하게 비밀수 있는 언덕같은 엄마의 존재”를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싶었다. 수시로 만나고, 국립집에서 함께 식사하며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그 이야기에 서부터 작품은 시작됐다. 세 사람도 엄마의 사랑으로 키워졌고, 또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 터라 마음이 통했다.

양희씨는 자식 잃고 눈이 멀고 난 후 음악을 연주하는 이를 연기한다. 선옥씨는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몸의 언어인 춤으로 표현한다. 당금씨는 모든 이들의 비밀 언덕이 되는 어머니 출연한다.

대학교수인 선옥씨의 참여가 과격적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다소 정형화된 틀 속에 갇혀 있었죠. 재미있는 것, 내 자신을 마음껏 풀어놓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양희 선생님의 노래에 몸을 움직이면서 희열을 느끼죠. 양희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싶고, 당금 선생님이 몸을 움직이는 거를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무대에 딱 섰을 때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 사람의 만남에 주변인들이 더 즐거워한다. 흔쾌히 음악감독을 맡아준 배창희씨를 비롯해 극 감수자로 참여한 박필수, 의상을 맡아준 바느질 아티스트 나예심, 무대 디자인의 조각가 이성용, 드라마 트루크의 김도일씨 등이 함께한다.

이번 작품은 완성형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길목이다.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 사람의 꿈은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다. 같이 늙어가면서 서로의 있는 그대로 날것을 느끼고 그 느낌을 그대로 무대에 올리고 싶다. 또 해외공연도 시도해 볼 계획이다.

“평생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달려온 세명의 예술가가 만났을 때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시도의 작업들에 다들 목말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싶어요. 세 사람이 교감하는 무대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어요.”

당금씨는 자신들의 작업이 학생들, 젊은 예술인들에게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되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3만원. 문의 062-226-244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순천만의 철새·칠계·짬뽕어와 사람들**

광주신세계갤러리 내달 17일까지 '순천, 삶 그리고 터'전

광주신세계갤러리는 9월17일까지 광주신세계 개점 19주년 기념전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순천, 삶 그리고 터'전을 개최한다.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는 광주신세계갤러리가 남도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선보이는 전시다. 그동안 남도지역의 음식문화, 섬, 영산강, 지리산, 진도, 강진 등 남도 곳곳을 작가들과 함께 답사하고, 이 과정에서 느낀 영감을 화폭으로 옮긴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열여섯 번째 테마는 천혜의 습지를 품은 생태도시 '순천'이다. 갈대가 역센 푸르름으로 순천만을 물들이던 지난 6월 전국의 미술인 17명과 소설가 이화경, 싱어송라이터 박소영 등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순천일대 답사를 다녀왔다.

이들 일행은 순천만과 조계산 자락을 중심으로 순



김태형 작 'Strange visitor'

천을 살폈다. 순천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새, 칠계, 방개, 짬뽕어 등을 만났고, 뽕배를 밀러 삶을 일구는 이들을 만났다. 17명 작가들은 40여 점의 그림, 드로잉,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작품으로, 이화경은 글 '순천'으로, 박소영은 곡 '짬뽕어'를 보

다'로 전시장을 꾸민다. 문의 062-360-163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희호·김동호·박용우·김서형·진이한·서현진·장우혁...

**28일 개막 광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밟는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2014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국내외 배우들이 대거 참여한다.

오후 6시20분부터 롯데시네마 총장로관에서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개막작인 '봄'의 조근현 감독과 주연배우 박용우·김서형이 참여한다. 또 지난해 '드라마 어워즈 베스트 스타상' 수상자인 영화배우 신현준을 비롯해 광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진이한·유인영과 추소영, 드라마 '제왕의 딸, 수백향'의 서현진, HOT 출신 장우혁 등이 참석한다.

그밖에 중국 최대 영화 대학인 전영학원 부원장 등 올해 영화제에서 특별전을 개최하는 중국 영화관계자 17명이 대거 방문하며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등이 레드카펫을 밟는다.

개막식에서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과 남성중창단 비엔 싱어즈의 오프닝 공연에 이어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수상자인 김동원감독과 영화예술 부문 특별상 수상자인 헨리 패셀 감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최근 밀라노, 달라스, 마드리드 영화제 등에서 수상



김서형 박용우

하며 화제가 된 개막작 '봄'의 배우·감독 무대 인사에 이어 개막작이 상영된다. 광주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1일까지 롯데 시네마 총장로관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린다.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포럼**

광주문화도시협의회(공동대표 김병기, 이하 광주문도협)는 28일 오후 3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민선 6기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

송진희 호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서는 이연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과 류재한 전남대 교수가 각각 '민선 6기 광주시 문화정책 방향과 내용'과 '꿈꾸는 문화도시 가능한가? 민선 6기 문화정책 제

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주필이 '전담 기관, 지역의 준비와 과제'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복지 현 주수 및 제안',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안태기 광주대 교수가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주홍 샌드네이션협회 이사가 '예술가가 상상하는 문화도시 광주', 김하림 조선대 교수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광주'에 대해 발표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쁜 마음 가득 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